

명성예식장 부지 36층→26층 재심의 요청

건설업체 사업지연 우려 층수 낮췄지만 경관·교통 문제 여건 고도 제한 적용·공공기여제 등 확대 적용 필요

〈속보〉광주 동구에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동구에 초고층 주상복합을 지으려던 지역건설업체가 층수를 대폭 낮춰 광주시에 재심의 요청했다. 광주 도시의 원형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동구의 경관 개선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단순히 신축 건축물에 대한 '층수 낮추기'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구도심 전반에 대한 고도 제한 적용, 공공기여제의 도입을 통한 구도심 재생 재원 마련, 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지침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구 수기동 옛 명성예식장에 36층 주상복합 건축물을 짓겠다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던 한 지역건설업체가 최근 26층으로 10개층을 낮춰 광주시 건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시 건축위원회는 동구 옛 시가지에 30층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주변 여건과 경관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 소위원회에 넘겨 심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한 교수는 "동구 상업지역이 대부분 좁

은 골목길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대규모 복합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경관은 물론 교통 소동, 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인구 유입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건설업체는 상당기간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늦춰지자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해 층수를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 동구의 주상복합건축물은 지난 2015년까지는 10층 규모였으나 2017년부터는 20층 이상 건축물이 꾸준히 들어서고 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도 계속되면서 동구의 주거지는 물론 옛 시가지까지 고층 건축물로 뒤덮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봉수 도시재생연구소 이사는 "시가지 전체의 고층화가 진행되고 있어 광주 경관 전체가 크게 바뀌고 있다"며 "고층 건축물의 승인 기준을 좀 더 세세하게 적용하고, 공공기여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도시의 원형인 동구에 최근 고층 주상복합건축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2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 신축이 예정돼 있는 명성예식장 전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 창업자에 전국 첫 1대1 전문가 매칭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 설명회

전남 창업지원 종합 플랫폼이 전국 최초로 창업자를 대상으로 준비단계부터 창업 후까지 1대1 전문가 매칭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12일 무안군 남약복합주민센터에서 예비창업자, 창업지원기관,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창업지원 종합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창업 지원 종합 플랫폼에서는 전남지역 27개 창업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결해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상담을 통해 수요자에 맞는 창업 코디네이터를 1대1로 매칭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플랫폼 운영은 다른 지역에서도 실행하고 있으나, 1대1 전문

가 매칭을 통해 준비 단계부터 창업 후까지 계속 컨설팅을 하는 것은 전남이 최하다.

전남도는 12월 시범 운영을 통해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 창업을 바라는 모든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2019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김신남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플랫폼 운영의 성공 여부는 창업 희망자의 길잡이가 될 전문가 멘토단의 활약에 달려 있다"며 "멘토단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살려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창업지원 종합 플랫폼(www.jnstartup.co.k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061-661-1970-1971)에 문의하면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시민참여예산 일부 쪼개기 폼수"

신수정 시의원 지적

광주시의회 신수정(민주·북구3) 의원은 12일 광주시 본예산에 대한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시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쪼개기 폼수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해당도 광주시 본예산에 편성된 시민참여예산은 모두 40개 사업에 98억 8500만원에 이른다.

교통정책과에서 제출한 시민참여예산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표준모델 설치'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노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민참여예산 공모에서 채택돼 내년 본예산에 3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시민참여예산 중 기존에 일반예산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나 법정 경비, 특정단체 지원과 이익을 위한 예산, 남비성 강한 행사위주 사업, 지역주민 반대 여론이 높은 사업은 부적격 사업으로 제외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에 포함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횡단보도 밝기 개선 및 노후 철주교체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가 편성돼 있어 중복유사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일반예산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는 부적격함에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쪼개기 폼수"라며 "시민참여예산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세계 민주주의 상징곡으로 거듭난다

광주시, 국비 9억 확보...창작 뮤지컬 제작 순회 공연

"사람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1980년 5월 광주와 시민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5·18 광주민주화운동 상징곡 '임을 위한 행진곡'이 세계 민주주의 상징곡으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12일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비가 내년도 국회 예산심

의 과정에서 9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작·보급, 글로벌 브랜드화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3억원(국·시비 각 50%)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국비 확보에 따라 '임을 위한 행진곡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고 2020년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순회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콩·대만·중국·캄보디아·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국가별로 제작과 불리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표준가사를 마련하고 행진곡의 가사와 배경, 과정 등을 세계어로 번

역해 배포한다. 이 밖에도 아시아, 유럽 등 민중가요 분야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카데미, 워크숍 등 국제학술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를 위해 2018년부터 관현악곡 제작, 국내외 연주회 개최, 창작 관현악곡 작곡공모 등을 진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상용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자진 사퇴

부적격 여론 부담 느껴

부적격 논란을 빚은 정상용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가 12일 사퇴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 삶의 마지막 봉사 기회로 삼기 위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공모에 도전했다"면서 "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많은 현안들이 놓여있는 절박한 광주의 상황에서 나를 둘러싼 논란이 지역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7기 광주시정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이용섭 시장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신분의 사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시간이 지날 수록 그에 대한 부적격 여론이 조성되면서 정 내정자가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의장 집무실에서는 의장단과 운영·행정자치·환

경복지·산업건설·교육문화 등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긴급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만장일치로 "임용이 부적격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0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낙하산 인사, 경영 능력과 전문성 부족, 위장전입과 자녀 병역기피 의혹을 사면서 정 내정자의 부적격 여론이 지배적이었

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정 후보자가 유공자 혜택을 받으려 광주가 아닌 서울에 계속 주소지를 두고 있고, 호주에 사는 아들이 병역을 앞두고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알려져 도덕성 논란도 일었다.

광주시는 정 내정자의 사퇴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5년 이후 광주시의회에서는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조직개편안 일부 수정 시의회 제출

자치행정국 선임 부서 자치행정과로 변경

광주시가 자치행정국 산하 선임 부서 변경 문제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조직개편안을 일부 수정해 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날 오전 의원 간담회를 통해 자치행정국의 선임 부서를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광주시가 지난날

26일 의회에는 자치행정과를 선임 부서로 한다고 제출했다가 같은 달 29일엔 설명도 없이 총무과로 다시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자치 확대를 시대의 상황에 맞춰 원안대로 주무 부서인 자치행정과를 선임 부서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었다.

결국 광주시는 의회 반발로 원안대로 자치행정과를 선임 부서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전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개편안이 시행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